

보도시점 2024. 12. 9.(월) 12:00 배포 2024. 12. 9.(월) 10:00

‘23년 모든 분위에서 소득 증가하며 가구 평균소득 +6.3% 증가, 소득분배 개선

- 근로(+5.6%)·사업(+5.5%)소득 증가 -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 증가
- 자산 증가(+2.5%)·부채 감소(△0.6%)

‘24.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2.5% 증가 전환하였다. 금융자산(+6.3%)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실물자산(+1.3%)도 지난해 큰 폭 감소한 이후 증가 전환하였다. 부채 측면에서도 금융부채(△0.8%)와 임대보증금(△0.1%) 모두 감소하면서 가구당 평균 부채가 △0.6% 감소하는 등, 가계의 상환 여력이 개선되었다.

* 자산증가율(3월말 기준, 전년동기비, %): ('18)8.7 ('19)2.7 ('20)3.1 ('21)12.8 ('22)9.0 ('23)△3.7 ('24)2.5

** 부채증가율(3월말 기준, 전년동기비, %): ('18)8.0 ('19)3.2 ('20)4.4 ('21)6.6 ('22)4.2 ('23)0.2 ('24)△0.6

‘23년 가구 평균소득은 고용 호조세 등으로 +6.3%, 실질로는 +2.7% 증가하였다. 코로나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1.9%)은 감소하였으나,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5.6%)·사업소득(+5.5%)이 총소득 증가를 견인하였다.

* 총소득 증감률(전년비, %): ('17)4.1 ('18)2.2 ('19)1.7 ('20)3.6 ('21)4.7 ('22)4.5 ('23)6.3

** 항목별 소득(만원): (근로)4,637<+5.6%> (사업)1,272<+5.5%> (공적이전)613<△1.9%>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는 개선되었다. 지니계수는 0.323으로 전년대비 감소(△0.001)하였고, 소득5분위배율 역시 5.72배로 전년대비 감소(△0.04배p)하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 분배지표('22→'23) : (지니계수)0.324→0.323 (5분위배율)5.76→5.72배 (상대적빈곤율)14.9→14.9%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분배가 지속 개선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고용·약자복지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상세한 분석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	책임자	과 장	오현경 (044-215-8570)
		담당자	사무관	양지희 (joyee@korea.kr)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정현엽 (potear02@korea.kr)



1 주요 내용

* 소득·분배는 유량(flow) 개념으로 '23년을 기준으로 '22년과 비교
자산·부채는 저장(stock) 개념으로 '24.3월말을 기준으로 '23.3월말과 비교

[1] 가계금융

가구당 평균 자산·부채(만원, %, 전년대비)

가구의 자산		가구의 부채		가구의 순자산	
자산 54,022 (2.5%)		부채 9,128 (△0.6%)		순자산(자산-부채) 44,894 (+3.1%)	
금융자산 13,378 (+6.3%)	실물자산 40,644 (+1.3%)	금융부채 6,637 (△0.8%)	임대보증금 2,491 (△0.1%)		

① [자산]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체 자산 +2.5% 증가

- 금융자산(비중 약 25%)은 1억 3,378만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
 - 전·월세 보증금(+4.7 → △2.1%)은 감소하였으나, 저축(+3.4 → +6.3%) 증가율이 확대되며 금융자산 증가
- 실물자산(비중 약 75%)은 4억 644만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
 - '23년 하락했던 부동산이 증가 전환(△6.6% → +1.1%)한 가운데, 기타 실물자산도 증가세 유지(+7.5% → +3.9%)

② [부채] 금융부채·임대보증금 모두 감소하며 전체 부채 △0.6% 감소

- 금융부채(비중 약 73%)는 6,637만원으로 전년대비 △0.8% 감소
 - 담보대출은 소폭 증가(+0.6%)하였으나, 고금리 지속 등으로 신용대출(△5.5%)·카드대출(△18.3%)이 큰 폭 감소
- 임대보증금(비중 약 27%)은 2,491만원으로 전년대비 △0.1% 감소

③ [재무건전성] 순자산 증가, 부채/자산 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

- 순자산은 자산 증가·부채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1% 증가
- 부채/자산 비율(△0.5%p, 17.4% → 16.9%), 금융부채/저축액 비율도 전년대비 감소(△7.4%p, 75.7% → 68.4%)하며 가계 재무건전성 개선

[2] 가구소득 · 분배

① [소득] 근로·사업소득 중심으로 가구소득 증가, 모든 분위 소득 증가

- '23년 가구 평균소득 7,185만원, 전년대비 +6.3%(실질기준 +2.7%) 증가
 - * 가구소득 증가율(%): ('17)4.1 ('18)2.2 ('19)1.7 ('20)3.6 ('21)4.7 ('22)4.5 ('23)6.3
 - '23년 고용 호조세 등*으로 근로(+5.6%)·사업(+5.5%)소득은 증가한 반면, 공적이전소득(△1.9%)은 감소
 - * 전산업생산지수(전년비, %): (전산업)1.0 (서비스업)3.2 / 취업자수 증감(전년비): +32.7만명
- 1분위는 근로(+3.1%)·사업(+23.1%)·공적이전(+5.7%) 모든 소득이 크게 증가하며 총소득(+7.1%)이 모든 분위 중 가장 큰 폭 증가*
 - * 분위별 소득 증감률(전년비, %): (1분위)7.1 (2)6.1 (3)5.8 (4)6.1 (5)6.4
 - **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감률(전년비, %): (1분위)5.7 (2)△7.8 (3)△4.4 (4)△2.6 (5)0.4
- 5분위 역시 근로(+5.1%)·사업(+3.4%)·공적이전(+0.4%) 모든 소득이 증가하며 총소득이 +6.4% 증가

② [분배] 주요 분배지표 개선, 정책의 분배 개선효과 소폭 하락

- 지니계수, 5분위배율은 개선,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과 동일
 - * 분배지표('22→'23): (지니계수)0.324→0.323 (5분위배율)5.76→5.72배 (상대적빈곤율)14.9→14.9%
- 코로나 지원금 소멸*로 정부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는 전년대비 다소 하락**
 - * 코로나 관련 추경 실적(조원): ('20) 66.8 ('21) 49.8 ('22) 78.9 ('23) 無
 - ** 개선효과('22→'23): (지니계수)0.072→0.069 (5분위배율)5.23→4.98배p (상대적빈곤율)5.3→5.0%p

시장·가처분 소득 기준 분배지표 및 정책의 분배 개선효과

구분	'22년			'23년		
	시장(A)	가처분(B)	개선(A-B)	시장(A)	가처분(B)	개선(A-B)
지니계수	0.396	0.324	0.072	0.392	0.323	0.069
5분위배율	10.99배	5.76배	5.23배p	10.70배	5.72배	4.98배p
상대적빈곤율	20.2%	14.9%	5.3%p	19.9%	14.9%	5.0%p

2 평가 및 시사점

1 [가계금융] 가계 순자산 증가 전환으로 부채상환 여력 개선

- '24년 가계 순자산 증가 전환*($\Delta 4.5\% \rightarrow +3.1\%$) →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 개선

* 가계 순자산 증감률(3월말, %): ('19)2.7 ('20)2.9 ('21)14.2 ('22)10.0 ('23) $\Delta 4.5$ ('24)3.1

- 설문조사 결과,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상환부담도 전년대비 완화

* '원리금 상환이 부담'($\Delta 2.5\%p$) 및 '상환 불가능'($\Delta 0.9\%p$) 응답 비중 감소

⇒ 서민·취약계층 지원 노력 강화

2 [가계소득·분배] 소득분배 개선, 정책노력 강화

- '23년 총소득은 고용 호조세*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5.6%)·사업소득(+5.5%)을 중심으로 +6.3% 증가(실질 +2.7%)**

* 전산업생산지수(전년비, %): (전산업)1.0 (서비스업)3.2 / 취업자수 증감(전년비): +32.7만명

* 가구소득 증가율(%): ('17)4.1 ('18)2.2 ('19)1.7 ('20)3.6 ('21)4.7 ('22)4.5 ('23)6.3

- 코로나 지원금 소멸*에도 근로·사업소득 증가, 약자복지 확충** 등으로 1분위 소득이 증가하며 주요 분배지표***는 개선

* '22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보상금(100~1,000만원) 등이 지급되었으나 '23년에는 지급되지 않음

** 생계급여 지원액을 지난 5년간('18~'22년)의 총 인상액(월19.6만원)보다 더 크게 인상(월21.3만원)

*** 지니계수 : ('22)0.324 → ('23)0.323, 5분위배율(배) : ('22)5.76 → ('23)5.72

⇒ 소득·분배가 지속 개선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고용·약자복지 확충 노력을 강화

참 고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결과

1

가계 금융부문

(1) 자산 : 가구당 평균 5억 4,022만원(+2.5%)

○ 자산 = 금융자산 1억 3,378만원(+6.3%) + 실물자산 4억 644만원(+1.3%)

<종류별 자산규모>

(만원, %)	자산	금융 자산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실물 자산	부동산	거주 주택	거주주택 外	기타실물 자산
2023	52,727	12,587	8,840	3,747	40,140	37,677	22,938	14,739	2,463
2024	54,022	13,378	9,710	3,668	40,644	38,084	22,692	15,393	2,560
증감률	2.5	6.3	9.8	△2.1	1.3	1.1	△1.1	4.4	3.9

(2) 부채 : 가구당 평균 9,128만원(△0.6%)

○ 부채 = 금융부채 6,637만원(△0.8%) + 임대보증금 2,491만원(△0.1%)

(만원)		부 채	금융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대출	기타	임대 보증금
전 체		9,128	6,637	5,273	946	52	367	2,491
연령 대 별	39세이하	9,425	8,306	6,429	1,386	25	466	1,119
	40~49세	13,148	9,819	7,824	1,488	66	441	3,330
	50~59세	10,317	7,341	5,765	1,034	79	463	2,976
	60세이상	6,328	3,882	3,191	421	42	228	2,446
중 상 · 중 · 하 · 유 · 무 · 별	상용근로자	11,283	8,150	6,535	1,172	42	401	3,133
	임시·일용근로자	3,390	2,689	2,084	276	65	264	701
	자영업자	12,020	9,643	7,607	1,404	69	563	2,377
	기타(무직 등)	4,631	2,458	1,904	355	48	151	2,173

(3) 금융부채 보유가구 인식

○ (원리금상환 부담 정도) ‘부담스럽다’ 65.1%(‘23년 대비 △2.5%p),
‘부담 없다’는 34.9%(+2.5%p)

○ (상환 가능성)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80.1%(+1.2%p),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4.5%(△0.9%p)

* ‘대출기한은 지나더라도 갚을 수 있다’ 15.4%(△0.2%p)

2 가계 복지부문

(1) 가구소득, 비소비지출 및 처분가능소득

□ (소득) '23년 평균소득 7,185만원, 전년대비 +6.3%(실질기준 +27%) 증가

- (원천별) 근로소득은 +5.6% 증가, 사업소득은 +5.5% 증가, 공적이전소득은 △1.9% 감소, 사적이전소득은 △1.0% 감소

* 원천별 증감률(%): (근로) 5.6 (사업) 5.5 (재산) 28.1 (공적이전) △1.9 (사적이전) △1.0
구성비(%): (근로) 64.5 (사업) 17.7 (재산) 7.8 (공적이전) 8.5 (사적이전) 1.5

- (소득 분위별)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

* 분위별 소득증가율(%): (전체) 6.3 (1분위) 7.1 (2) 6.1 (3) 5.8 (4) 6.1 (5) 6.4

- (가구주 연령대별) 모든 연령층 소득 증가

*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30대 ↓) 1.1 (40대) 8.2 (50대) 5.8 (60세 ↑) 10.0

□ (비소비지출) 전년대비 +3.2% 증가한 1,321만원이며, 이자비용(+5.3%), 세금(+3.3%) 등이 주로 증가

* 항목별 증가율(%): (세금) 3.3 (연금·사회보험) 1.6 (가구간 이전지출) 3.1 (이자) 5.3
구성비(%): (세금) 32.6 (연금·사회보험) 33.3 (가구간 이전지출) 11.0 (이자) 19.7

□ (처분가능소득) '23년 처분가능소득은 5,864만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

(2) 소득분배 지표(처분가능소득 기준) : 주요 분배지표 개선

□ (지니계수) 0.323으로 '22년(0.324) 대비 △0.001 감소(개선)

- 근로연령층(18~65세)은 0.302으로 '22년(0.303) 대비 감소(△0.001)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0.380으로 '22년(0.383) 대비 감소(△0.003)

□ (5분위배율) 5.72배로 '22년(5.76배) 대비 △0.04배p 감소(개선)

- 근로연령층(18~65세)은 4.93배로 '22년(4.98배) 대비 감소(△0.05배p)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7.11배로 '22년(7.11배)과 동일(+0.00배p)

□ (상대적 빈곤율) 14.9%로 '22년(14.9%)과 동일(보합)

- 근로연령층(18~65세)은 9.8%로 '22년(10.0%) 대비 감소(△0.2%p),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39.8%로 '22년(39.7%) 대비 증가(+0.1%p)